

활자적 상상력과 영상적 상상력의 절묘한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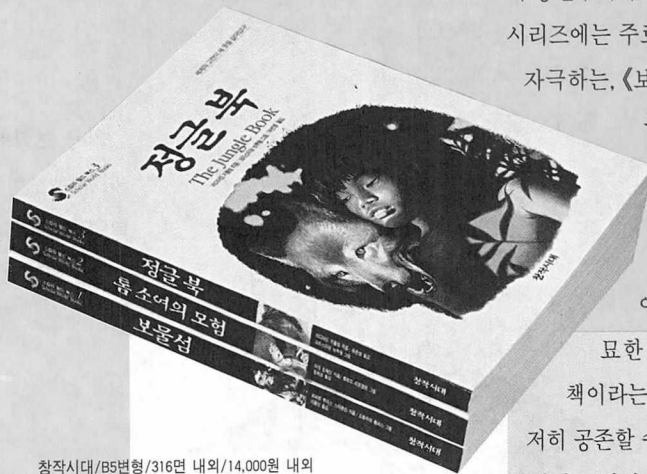
〈스칼라 월드 북스〉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대망의 2000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디지털과 인터넷이 아닐까 싶다. 이제 아날로그 매체인 책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종이책의 종말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은 1992년에 발표된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책의 종말〉이라는 논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종이)인쇄매체는 이제 운명을 다한, 시대에 뒤진 기술이며 지난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오늘날 책과 (종이)인쇄매체가 증가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기 전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종이의 소비가 늘어난 것을 종이책이 사라지기 전의 마지막 광염(狂炎)으로 본 것이다. 과연 그런가? 종말론자들은 이제는 종이 소비가 폭증함으로써 종이의 수급문제 때문이라도 종이책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전세계 인구의 1/3이 넘는 중국과 인도가 근대화되는 것만으로도 종이의 수급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년 전국에서 각 과목의 교재 1만8천종 36억권이 출판되는 중국은 이미 종이난으로 신학기마다 교과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정도다. 6백만부를 발행하던 《인민일보》는 종이기근으로 발행부수를 2백만부로 줄여야만 했다. 이런 중국이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하고, 지금까지 신문이라는 이기(利器)마저 누려보지 못한 80%의 인구가 이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할 때는 머잖아 종이 바닥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종이책 또한 자연 종말



창작시대/B5변형/316면 내외/14,000원 내외

을 고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전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런 상태를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인간복제까지 실현되는 마당에 종이 효과를 내는 대체용지를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구 곳곳에서 이미 문명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으며 머잖아 새로운 인쇄 ‘용지’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종이책의 개념과 형식을 새롭게 하면 그만이다. 지금 우리가 급급히 우려해야 하는 것은 종이책에 담아낼 내용(contents)과 그것을 담을 용기(‘새로운 책’)일 뿐이다. 우리는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된 콘텐츠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책을 만들 수 있다.

인간에게 일단 신체화된 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신체성은 기술혁신을 수용해 오래된 기술(예를 들면 종이책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즉, 인간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혁신으로 아날로그의 가능성을 재발견한다. 또 새로운 형식의 책, 즉 전자책은 새로운 독자를 창출해낼 것이며, 이렇게 창출된 독자는 낡은 텍스트(종이

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살리는 새로운 책이 등장해 또다른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미 이 같은 사례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작시대가 번역·출간한 〈스칼라 월드 북스〉다. 프랑스의 갈리마르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심혈을 기울여 출간하기 시작한 이 시리즈에는 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물섬》《툼소녀의 모험》《정글북》과 같은 전세계 고전들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소설이 갖는 허구적 상상력(fiction)과 역사와 지식이 갖는 사실적 상상력(fact)의 절묘한 결합이다. 그 동안 두 상상력은 책이라는 하나의 장(ground) 안에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이 등장함으로써 수많은 정보는 컴퓨터 모니터 속으로만 숨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불투명성을 자각한 인간은 문명에 의한 가공물로서의 아날로그, 즉 사물(object)로서의 아날로그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 즉 물건(thing) 그 자체로서의 아날로그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됐다. 촉각을 중시하는 새로운 ‘물성(物性)적 상상력’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책의 신체성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상력은 디지털의 등장으로 재발견됐다. 이런 컨셉을 정확하게 응용한 것이 바로 갈리마르의 새 시리즈다.

기존의 문학작품 안에 삽화·그림·드로잉·지도·사진·영화 등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캡션과 함께 제시해 역사·지리·사회관습·생태계·건축·문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활자적 상상력과 새로운 백과사전적 책이 주는 영상적 상상력을 결합시킨 ‘새로운 책’이다.

이 시리즈는 이미 22개국의 출판사에서 개발분담금까지 부담하며 출간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새로운 개념의 책으로 만들어 원래의 나라에까지 역수출하고 있다. 이런 책 만들기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종이책의 미래는 오히려 더 낙관적이다. ●